



4면

전북대,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전주매일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음 4월 24일) 제32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강원의 새출발 축하”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방문

내달 3일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 협약 체결기로

전북도는 지난 9일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전북보다 6개월 앞선 강원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를 가졌다.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남형기 국정운영실장, 전북·강원·제주·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전북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막바지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 도왔으며, 이날 참석은 그간 지내왔던 강원도의 입법과정을 이겨낸 기쁨을 함께 하는 의미도 내렸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은 지난 5월부터 국조실과 함께 공식적인 부처 협의·조정을 시



작했고, 다음달 13일이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전북도청에서 개최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법 3차 개정 준비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정부 부처 설득과 국회 대응에 있어 두 지자체의 상호 협력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북이 제안한 '지역특화형 비자'가 올해 전북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

인사를 전했다.

덧붙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와 전북 외국인 인력 관련 특례를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등 정부정책의 시범지역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전북, 강원, 제주, 세종의 특별자치시도가 각각의 장점을 살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각오로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관영 전북지사는 오는 16일에 회의를 주재하며 232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법 해석력을 높이고 설득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7월에는 지역 의원실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세미나와 토론회도 병행하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4개 특별자치시도는 강원도 출범식에 이어 7월 3일 국회에서 열리는 상생협력 협약체결에 참석을 약속하며,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연대를 지속하기로 다짐했다. /김재훈 기자



“구강보건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이자”

지난 10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국무원, 전북도의회 의원, 승수중 전북치과민사회장 및 도 치과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감염병 증가세... 도 “개인방역수칙 실천을”

최근 독감·수족구병 등 일상생활 속 감염병 환자 발생 급증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손 씻기·마스크 착용·환기 등 강조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가 완화됐지만 일상생활 속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다며 도민 스스로 생활속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도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도 방역당국 설명이다.

또한 최근 독감·수족구병 등 감염병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표본감시 감염병 주간 발생 현황을 보면 독감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 1,000명당 25.7명으로 2022~2023년 유행기준인 4.9명보다 5.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족구병은 14.8명으로 전주(5월 20일, 15.7명) 대비 감소했으나 과거 2년에 비해 높은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족구병은 주로 영유아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며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확진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을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면

경우 전파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해 가정에서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대면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등 개인 생활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이승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해제 등 방역정책이 완화되고 접촉이 잦아지면서 사람간 전파되는 질병은 당분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도, 해파리 대책본부 구성·운영

전북도는 지난 8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북 전 해역에 올해 첫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는 5월 19일경부터 보름달물해파리 위기 관련 징후가 보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정밀조사를 요청했고, 정밀조사 결과 양개는 100㎡당 32마리의 보름달물해파리 성체가 확인됐다. 이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기준인 100㎡당 5마리를 넘어선 수치다.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에 따라 전북도는 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시·군과 협조해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해파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비 7,000만원을 활용해 해파리 구제사업을 실시해 어민들의 어업 피해 및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의 쏘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계속 기울인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공공외교 ‘중심축’ 된다

도 국제교류센터, ‘국제협력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전북도 국제교류센터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실상부한 전북 공공외교 중심축으로 거듭난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민선 8기 전북도정 전략인 ‘지역의 실익을 추구하는 국제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추진력을 제고한다.’

지난 9일 관련 조례가 공포돼 정관 등 개정문을 통해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절차를 거쳐 전북 국제협력 전담기관으로서 변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먼저 1국 3팀을 2실 4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정원도 기존의 13명에서 22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도의 국제화 방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업팀을 신설, 전북형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류협력팀을 외국인 교류팀으로 변경, 외국인 유치·정착 전략 마련과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지원 기능을 추가 수행하면서 전북 국제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기관의 명칭 변경과 함께 전북이 가지는 산업, 문화, 교육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유학생 협의회 구성과 ODA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및 내실있는 국제교류 동력확보 준비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류협력팀을 외국인 교류팀으로 변경, 외국인 유치·정착 전략 마련과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지원 기능을 추가 수행하면서 전북 국제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기관의 명칭 변경과 함께 전북이 가지는 산업, 문화, 교육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유학생 협의회 구성과 ODA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및 내실있는 국제교류 동력확보 준비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완주 일진하이슬루스 노사, 임단협 합의

임금 등 사측과의 갈등으로 직장 폐쇄 사태까지 갔던 완주 일진하이슬루스 노사가 극적으로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진하이슬루스 지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해 91%의 찬성률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측이

지난달 2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38일 만이다.

합의안에는 근로시간 면제 2,000시간과 노조 사무실 설치, 근무 중 노조교육, 기본급과 수당 인상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단협 타결과 동시에 직장폐쇄도

해제, 오는 12일부터 정상 출근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이어온 협상이 결렬되자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사측은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 인력 투입 논란이 일면서 공장 정문 앞에서 노조와 경찰이 충돌해 조합원 11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뉴스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갯벌축제

잡Go 맛보Go 즐기Go

2023. 6. 23(금) ~ 25(일)

전북고창군심원면 만들갯벌체험학습장 일원

6/23(금) 18:30
개막콘서트
(조은영의 가요세상 공개방송)
초대가수: **홍진영, 미스터트롯2, 불타는 트롯맨** 출연가수

6/24(토) 18:00
고창군예술인 한마당
초대가수: **강혜연 (미스터트롯2)**

6/25(일) 17:00
전국갯벌가요제
(예선) 11:00 / (본선) 17:00
접수: 6.1~6.20(선착순 50명)
접수문의: 063)212-2312

주최 | 만월어촌계 | 주관 | 고창갯벌축제위원회 | 후원 | 고창군 수협중앙회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 고창군풍천장어생산자협회